

한국의 노숙원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file of the new Korean Homeless

정원오*/김수현**

목 차

- | | |
|-------------------|----------------|
| I. 서 론 | IV. 노숙경로 및 요인들 |
| II. 노숙원인에 관한 선행논의 | V. 맺음말 |
| III. 노숙자의 생활사 분석 | |

ABSTRACT

Won-Oh Joung · Soo-Hyun Kim

It is commonly accepted that the homeless in Korea were caused by the 'unprecedented' economic crisis because they increased so rapidly in a short time since the end of 1997. A survey on the life history of the 'new' homeless, however, shows that they have suffered social alienation, family breakdown, and economic instability for a long time. From the surveyed life histories of the 110 homeless people staying in temporary shelters, we can point out ① inherited poverty in their youth, ② low educational career and skills, ③ vulnerable accommodation, ④ fragile family ties, ⑤ low payment and unstable employment status, ⑥ accidents as the factors of becoming homeless in Korea.

Although the economic crisis was the trigger for the sudden increase of the homeless, the new homeless people in Korea are essentially from the most vulnerable group in the society.

The above findings imply that it will take long time for a homeless policy to do some effect. As the homelessness has been caused by complex problems, the homeless policies also have to be multi-dimensional and long-term.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사회개발연구부 부연구위원

I. 서 론

우리 나라에서도 1998년부터 노숙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화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도 노숙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분산되거나 격리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1997년 말까지 서울역 주변의 노숙자는 100명을 넘지 않았으나, 1998년 4월에 400여명, 6월에 1,300여명, 9월에 2,000여명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에 서울시는 1998년 9월부터 노숙자를 위한 임시 숙소(희망의 집)를 100여곳 확보한 다음, 1999년 2월까지 약 4,500명에게 숙소를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1999년 5월까지도 서울역 부근에는 여전히 상당수의 노숙자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초유의 노숙자 사태를 맞아 우리 사회는 적잖이 당황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대량실업 사태의 와중에 빚어진 일이라 노숙자 문제는 우리 경제난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노숙자는 IMF에 따른 대량 실업난 때문에 발생했으므로, 응급보호 차원에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여 조만간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희망의 집', '자유의 집'과 같은 응급시설이 확보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실적이 중요한 원인이었다고는 하나 대다수의 노숙자들이 이미 가정이 해체된

상태여서, 노숙자 문제의 뿌리가 간단치 않다는 점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특히 희망의 집 등에서 생활하는 3,000명 내외의 노숙자들의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노숙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히 학문적 관심으로서만이 아니고, 효과적인 노숙자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그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희망의 집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와 관찰을 통해 생활경로를 분석하고, 노숙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일반화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서울시 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1998년 12월 21일부터 1999년 1월 21일까지 이뤄진 조사는 서울시내 100여개 희망의 집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에 속하는 8개를 선정하여, 그곳에서 생활하는 노숙자 전원을 대상으로 했다. 직접 노숙자를 면접하고 기록한 것은 외부의 연구자가 아니라, 실제로 노숙자와 숙식을 같이 하는 사회복지사 혹은 생활지도원들이 담당했다. 조사과정에서 연구진과 조사팀은 3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조사방향과 내용을 협의했으며, 조사종료 뒤에도 각 희망의 집별로 미비점을 보완했다. 의료적인 측면의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의료진이 조사대상 희망의 집을 개별적으로 방문

했으며, 워크숍 과정에도 참여하여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도왔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조사된 사례는 110명으로,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조사되었다.

- 성장배경 : 부모의 직업, 부모의 학력, 출신지역, 부부관계, 계층적 배경, 주거생활, 본인의 학력
- 가족관계 : 결혼여부, 결혼형태, 부부관계, 자녀의 수, 자녀와의 관계
- 사회적 지지망 : 혈연적 관계망(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친지와와의 관계), 동료 관계(고향 친구, 학창시절 친구, 직업동료), 종교 사회단체의 지지망, 공공부문의 원조
- 직업과 소득 : 최초의 직업, 직업이 동경로, 노숙 직전의 직업, 직업적 특성, 소득, 소비지출패턴(저축, 주거형태·비용)
- 사회적 이탈 : 가출, 비행 및 범죄, 구걸행위
- 건강상태 : 약물 중독, 음주 및 알코올 중독, 정신이상, 신체적 건강상태(만성질환, 법정 전염병)
- 현재의 심리상태 : 스트레스의 정도, 노숙생활에 대한 적응 정도, 미래에 대한 계획
- 노숙생활의 패턴 : 노숙자와의 관계, 집단화의 정도(개인, 집단의 규모, 집

단의 역할), 노숙지역, 직업활동의 종류와 지속성, 노숙자를 위한 각종 서비스 이용 실태와 만족도

본 논문에서는 개인별 조사기록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 20여 사례를 추출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전체적인 조사결과는 현재 별도 출간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이다. 본 조사결과가 노숙자 전체를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본격적인 노숙원인 분석연구로서 후속연구를 위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노숙원인에 관한 선행논의

누가 노숙자가 되는가? 어떤 요인에 의해 노숙생활로 전락하는가? 외국의 홈리스(Homeless) 논의에서 지적하는 가장 중요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은 빈곤과 주택문제이다. 홈리스가 일차적으로 정상적인 주택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택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렇지만 노숙자를 발생시키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요인은 빈곤문제이다. 또 이는 빈곤을 심화시키고 소득 분배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제구조의 문제와 취약한 사회보장제도 문제로 연결된다.

빈곤과 저렴한 주택의 부족이 홈리스 발생의 사회구조적 배경을 이룬다면, 그 이외에도 또 다른 개별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National Coalition for the Homeless(NCH)의 1998년 보고서에 따르면, 그러한 요소를 다음의 4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적절한 의료보호의 부족 : 주거 비용을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과 개인들에게, 심각한 질병과 장애는 홈리스로 전락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정폭력 : 빈곤계층의 매맞는 아내들은 학대받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홈리스로 떨어질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한다. 1990년의 포드재단의 연구에 의하면 홈리스 여성과 아동의 50%가 학대를 벗어나기 위해 노숙을 택한 것으로 밝혀졌다(Zorza, 1991)

셋째, 정신질환 : 독신 성인 홈리스의 약 20-25%는 심각하고 만성적인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Koegel et al, 1996). 50년대와 60년대의 탈시설화 운동의 영향으로 많은 정신병동 입원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했지만, 이들이 곧바로 홈리스로 연결된 것은 아니다. 80년대에 소득의 약화와 저렴한 주택의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신질환자의 일부가 홈리스로 전락한 것으로 추정된다(Federal Task Force on Homelessness and Se-

vere Mental Illness, 1992).

넷째, 약물 의존 : 최근까지 약물남용과 홈리스와의 관계는 많은 논쟁을 촉발시켜왔다. 알코올 의존과 약물 남용의 사례가 홈리스 인구 집단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의 홈리스 증가를 약물남용만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알코올과 약물에 의존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홈리스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빈곤하면서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홈리스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은 홈리스의 개인적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에서 주로 지적되는 요소들이다. 질병 및 장애, 정신질환, 알코올 및 약물 의존, 가정 폭력, 비행 및 범죄, 저학력(저기능) 등이 홈리스 인구집단에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현상들이며,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이 노숙생활로 전락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홈리스를 분석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명한다. Leach(1979)는 내생적(intrinsic) 원인과 외생적(extrinsic) 원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전자는 노숙의 원인을 개인의 정신적·신체적인 능력 손상이나 장애로 설명하는 것이며, 후자는 실직, 빈곤과 같은 외부의 상황적 요인을 의미한다.

Shinn & Weitzman(1990)은 홈리스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홈리스로 밀어 넣는 요소들을

다차원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개인적 차원(the level of individuals), 사회적 조직의 차원(the level of social groups), 사회경제적 상황의 차원(the level of the socio-economic context)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개인적 차원의 요소들은 개인의 특성, 경험, 행위들로 구성된다. 개인의 특성은 연령, 저소득, 인종,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한 장애, 교육수준으로 구성된다¹⁾. 개인적 경험들 중에서 중요한 요소들은 주거의 상실, 임신 등에 따른 주거수요의 증가, 실업 혹은 복지급여의 상실에 따른 물질적 자원의 감소, 약물남용과 가족해체, 가정폭력 등이다.

사회적 조직의 차원은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을 의미한다. McChesney(1987)에 의하면 사회적 관계망은 홈리스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들은 주거를 유지하거나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원의 부족에 대처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런데 홈리스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홈리스들은 사회적 유대가 결핍되어 있고 특히 친척과의 밀접한 유대가 결여된 경우가 많다²⁾.

사회경제적 상황의 차원에서는 저렴

한 주택의 부족, 특히 저소득 가구와 저렴주택 비율의 불일치를 가장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의 설명은 다차원적으로 얽혀 있는 홈리스를 발생시키는 구조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구분한 것이며, 실제에 있어서는 각 차원의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역동적인 관계에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소들이 작동하는 메커니즘과 변수들간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언급된 많은 요소들이 홈리스의 원인 요소이기도 하며 또한 홈리스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수들 중에 일부는 홈리스로 전락하는 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홈리스를 지속시키는, 즉 홈리스의 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할 것이다. 또한 변수들 간에는 상호 영향을 미치는데 주로 거시적 수준의 요인이 미시적 수준의 요인에 영향을 미치지만, 미시적 수준의 변수들은 상호 중간매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더 많은 실증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이유이다.

이와 같은 외국의 선행논의를 염두에 두면서, 본 사례조사를 통해 밝혀진 노숙의 원인을 살펴보겠다.

1) 연령의 측면에서 연소자가 홈리스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들이 있으며(Weitzman et al, 1989), 교육 수준이 홈리스와 특별한 관련이 없다는 연구들이 있다(Sosin et al, 1988). 이러한 주장들은 주요한 논쟁의 주제이다.

2)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Bassuk & Rosenberg(1988) ; Mowbray et al.(1986) ; Rossi et al.(1987) ; Sosin et al.(1988)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Ⅲ. 노숙자의 생활사 분석

1. 성장 배경

외국의 홈리스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의 결혼관계에 관한 관심은 적다. 서구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부모의 이혼, 부자가정, 모자가정 등이 특별한 성장과정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경우 아직도 가족 중심의 문화가 강하고, 이혼과 재혼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재혼과 편부모 가정이 예외적인 사례로 취급되어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그러한 가정에서의 성장이 정서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볼 때 노숙자들의 성장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는 성장배경의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면접대상자 중 사실혼(동거) 관계이거나 재혼한 부부 관계에서 출생한 사례가 전체의 1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 과정에서 부모관계의 변화를 포함하면 약 30%가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 가정폭력 등을 경험하거나 부모가 알코올의존이나 정신질환 상태에서 성장한 사례가 약 35.5%로 나타나

고 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성장환경은 부모들의 부부 관계와 연관이 있으며, 이후 노숙 생활로 이르는 원인(遠因)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다음의 사례들이 잘 보여 주고 있다.

<사례 1>

빈곤의 첫째로 태어난 그에게 시련이 닥친 것은 8세 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6달 간격으로 돌아가셨다. 할아버지는 노환으로, 아버지는 지나친 술로 인한 간경화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보다 큰 고통은 아버지 돌아가신 1년 후에 어머니가 재가해 떠나버린 사건이다. 밑으로 세 동생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형제 모두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재가해버린 것이다. 이 사건은 자신의 삶이 보통사람보다 어려워진 중요한 계기가 된다. 만약 어머니가 재가하지 않았더라면 자신도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믿고 있다. 다 합쳐 3마지기밖에 안 되는 전답이었지만 연로한 할머니를 대신하여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집안 일을 다하다시피 하며 살았다.

<사례 1>은 K씨(38세)의 생활사 일부로 구성했다. 15세에 양복점 '시다'로 시작해서 주방일 등을 하다가 1998년 3월에 실직하고 서소문 공원에서 약 1개월 노숙생활을 경험한 뒤 지금 현재 모희망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자이다. 그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조기 사망, 어머니의 재혼, 가난한 경제적 배경, 이로 인한 저학력과 어린 나이의

취업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례 2>

김씨는 올해 40세가 되는 독신 노총각이다. 그는 1960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대구에서 보육원 생활을 한 관계로 그렇게 알고 있다. 부모님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 3살 때 보육원에 맡겨져 지금도 그 곳 원장내외를 부모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다.

<사례 2>는 어렸을 때부터 보육원에서 생활하였고, 40세가 될 때까지 정상적인 가족을 구성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사례의 일부분만을 소개하였으므로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생활사 전체가 나타나 있는 면접기록지의 상담자의 소견에 의하면 정서적인 장애 현상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 3>

지씨(37세)는 처음에 요리사 출신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집 음식 배달로 20여년을 지냈다. 그의 특징은 외모에서부터 말투, 사고방식까지 마치 초등학교 시절에서 성장이 멈춘 것 같다는 점이다. ... 7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보육원에서 자란 신세가 되었다. 부모에 대한 기억은 어렵풋하지만 원망은 대단하다. 자신이 이렇게 된 이유는 모두 부모 탓이라는 점에서 한 치의 양보도 않는다. 학교는 보육원에서 보내 준 중학교가 전부이다. 보육원에서의 생활이 그의 인성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어린 시절 보육원 생활은 과장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례 4>

박씨는 부모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으며, 7살 때 어머니가 동생을 낳은 후 친조부모에게 맡겨져 양육되었다. 부모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고 이로 인해 부부간에 잦은 싸움이 있었다는 것만을 기억하고 있다. 심할 때는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할 정도였다고 한다. 자전거 포와 구멍가게를 하는 조부모에게 맡겨진 이후로 부모와의 연락은 끊어졌고 초등학교는 제주도에서 졸업하였다. 조부모와는 약 1년간 살았고 얼굴은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다. 8살 때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를 받고 어머니를 찾아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였다. 서울로 올라와 약 1년간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있다가 제주도에 있는 평해 보육원으로 보내졌다. 보육원에서는 중학교 1학년 중퇴할 때까지 있었다.

<사례 3>은 보육원에서의 성장과정이 왜곡된 인성을 형성하는 형태를 잘 보여 준다. 또한 성장 후 어린 나이에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과 그 직업의 특성이 노숙자로 전락하기까지의 대강의 경로를 짐작케 한다. <사례 4>는 보육원에서 성장하게 되는 하나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보육원에서 성장하는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많은 노숙자들이 어린 시절의 불우한 환경을 고백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그들로 하여금 가출과 비행, 범죄 등의 행위로 쉽게 연결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며, 이후의 불안정한 직업, 불안정한 주거생활, 불안정한 가정생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의 사례들은 그러한 단면들을 보여 준다.

<사례 5>

김씨는 서울 마포에서 76년에 태어나 10살 때 부모가 이혼하여, 계모, 아버지와 함께 지내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가출하여 미장원에서 먹고 자면서 그 분야의 기술을 익혔다. 부모의 이혼은 아버지의 심한 의처증과 폭력, 그리고 자신을 때리는 것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나타났다. 지금도 그에게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가 8살인 자신에게 “너는 공부로는 짝수가 틀린 놈이니 앞으로 너를 공부시키지 않겠다”고 한 말이다. 부모는 이혼하여 아버지는 바로 재혼하고, 어머니는 지방으로 내려갔다.

20살 넘어서야 어떻게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는데 수원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기대고 의지하고도 싶었지만 어린 시절 자신을 놔두고 가버린 데 대한 분노와 이제는 더 이상 의존하는 삶을 살기 싫어 연락을 앓고 지낸다 ...

<사례 5>는 아버지의 의처증,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을 경험한 사례이다. 아버지의 재혼, 계모 슬하에서의 생활, 13세의 나이에 가출, 그리고 직장생활로 이어지는 노숙자의 생활사의 일부분이

다. 다음의 <사례 6>도 아버지의 재혼, 조기 가출 등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사례 6>

오씨는 자신의 삶이 뒤틀리게 된 것은 어머니가 자신을 낳고 100일만에 아버지와 이혼하여 집을 나간 데서부터라고 생각한다. 자세한 원인은 모르지만 아무래도 아버지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한다.

이후 아버지는 바로 재혼했고, 어머니는 지금까지 홀로 살고 계시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작정 서울에 올라와 서울역에서 구두닦이로 시작했다. 근 19세까지 구두닦이와 양화공으로 살면서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했다. 그러다가 고향에 내려가 방위로 군복무에 임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방위로 같이 근무하던 친구의 뺨에 넘어가 매우 큰 범죄를 저질렀고 본인은 공범죄로 6년간의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된다.

다음의 사례는 어린 시절의 불우한 환경이 끊임없는 범죄로 이어진 경우이다.

<사례 7>

황씨는 올해 32살 되는 청년이다. 형제는 모두 4남매인데 10살 때 부친이 사망하고 집안이 매우 어려워졌다. 아버지는 알코올중독 같았는데 어렸을 때 많이 맞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가난한 집안형편과 어려서부터 문제아로 찍힌 관계로 더 이상 고향에서는 있기 싫어 14살에 서울에 올라왔다. 처음 서울역 부근에서 앵벌

이 비슷한 구걸생활을 하다가 16살 때 절도, 폭력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18살 때 다시 폭력혐의로 교도소 생활을 2년간 하였다. 다행히 교도소에서 중, 고등 검정고시를 우수하게 통과하여 모범수로 가석방된 게 20세 때이다.

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본 성장환경이 노숙자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노숙자들이 이러한 불우한 성장배경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모의 이혼과 재혼, 조기 사망,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비정상적 성장환경은 빈곤과 결합하여 이들이 성장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배경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2. 학업과 직업선택 과정 (사회화 과정)

노숙자의 성장 배경에서 어느 정도 나타났지만, 그들은 높은 수준의 혹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니고 있지 못하였다. 조사대상 노숙자의 평균 교육수준은 정규학교 교육연수로 계산하여 9.05년, 즉 중학교 졸업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조사대상자의 28.2%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지니고 있었고, 중학

교를 중퇴했거나 졸업한 경우가 30.0%에 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적 배경은 이들이 어린 나이에 가출하거나 독립하여 직업활동을 시작하는 배경이 되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화 과정은 가정과 학교에서보다는 직장에서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노숙자들이 첫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은 숙식을 해결하거나 생존하기 위한 절박한 이유 때문이다. 그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취업구조 속에서 저축과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또한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경험할 기회도 거의 없었다. 직장이 곧 주거공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사례 8>

학력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박씨는 일찍이 가출하여 혼자 생활해온 것으로 판명되었다. 8세 때(1973년) 처음으로 가출하여 서울로 상경, 이 때부터 독립하여 혼자 생활하게 되었다. 분식점에서 1년간 서빙을 하였는데 물론 보수는 없이 숙식을 해결하는 차원이었다. 9세 때 정확히 주소는 기억되지 않으나 서울소재 다리미공장에 1년간 근무하였다. 이때도 숙식 해결이 보수였다. 그후 2년간은 통닭집에서 서빙을 하였다. 이 때가 처음으로 보수를 받으며 일한 시기인데 보수는 월 1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한다.

청소년기인 13세에서 16세까지는 서울

의 레스토랑에서 월 5만원 정도의 보수로 서빙을 하였다. 그가 17세이던 때(1982)부터 33세로 실직하기 전까지(1998)는 유흥업소(나이트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등)에서 서빙일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례 8>은 어린 나이의 가출과 숙식을 해결하기 위한 무보수의 직업활동, 직장과 주거공간의 밀접한 연관성 등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그의 사회화 과정이 어린 시절의 노동활동과 청소년기의 유흥업소에서의 직장생활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사례 9>

삼촌집에서 다니던 중학교를 중퇴한 그는 작은어머니의 소개로 서울의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를 소개받아, 15세이던 해 가을(1994년)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다. 16세부터 17세까지 직업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선반기능사2급, 기계조립기능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1997년에 문래동의 기계공장에 선반기능사로 취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성격을 보았을 때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잘 대응하지 않는다. 이러한 성격은 그가 유년시절에 부모를 여의고 안정적인 생활보다는 자취 생활, 그리고 작은 아버지 집에서 사촌들과 함께 생활하게 됨으로써 소위 눈칫밥이라는 것에 익숙해졌기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사례 9>는 노숙자들이 겪을 수 있는

사회화의 한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조기 사망, 형제·자매들로 구성된 소년소녀 가장의 생활, 삼촌집에서 없혀 지내던 생활, 중학교를 중퇴하고 직업훈련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공동체 생활, 그리고 18세의 취업에 이르는 과정이다. 직업훈련원에서의 생활이 그나마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은 이 사례가 성장과정에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던가를 역설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사례 10>

그가 10세 되던 해(1975년), 어머니의 권유로 서울의 중화요릿집에 서빙일을 하러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후 계속적으로 가족과 단절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후 서울 은평구의 아동일시보호소에서 11세부터 13세까지 생활하였다. 아동일시보호소에서 생활하면서 집안과의 연락은 거의 단절된 상태였고 그곳에서 학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어린 시절에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였고 학업 또한 계속적으로 유지한 것이 아니어서 연락되거나 같이 지내고 있는 친구는 아예 없다고 한다. 지금까지도 연락되는 친구는 아동일시보호소에서 만났던 형들이라고 한다.

아동일시보호소에서 나온 이후 그는 보호소에서 만났던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구두담이 생활을 8년 정도 하였다. 이 때의 수입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었고 서울에서 혼자만의 생활을 유지하는 정도이었다고 한다. 그후 최근 실직 전까지 중

화요릿집에서 주방장보조 생활을 하였다.

<사례 10>은 아동보호소에서의 생활,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선배들과의 관계, 그들과의 연소 노동활동의 시작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앞의 사례들과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환경의 사회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 사회화 과정을 겪지 못한 사례들이 경험하는 하나의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다.

3. 결혼과 주거 생활

앞에서 살펴본 성장배경에서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의 노숙자들의 상당수는 결혼을 하지 못했거나, 했더라도 매우 불안정한 생활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통계적으로도 확인된다. 조사대상자 중 결혼경험이 있는 사례는 사실혼(동거)을 포함하여 61.8%에 불과하였다. 이는 38.2%가 어떤 형태의 결혼도 못해본 독신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에서 살펴볼 사례들에서 결혼과 이혼, 그리고 독신생활을 하는 과정과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업선택과정에서 그들의 주거생활의 일부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취업과 숙소문제의 해결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이다. 직장이 곧 숙소인 형태가 미성년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이다. 그리고 현재의 노숙자들은 그러한 형태의 주거생활이 중, 장년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노숙자가 된 계층의 사람들은 직업의 상실이 임금의 상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주거공간의 상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실제 노숙자들의 16.7%, 17.4%가 5년전, 10년전에 직장의 숙소에서 생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노숙하기 직전에는 월세 35.2%, 일세방 21.9%, 직장내 숙소가 12.4%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사례들은 그들의 결혼생활과 주거생활이 전개되는 다양한 양상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사례 11>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차씨는 약 1년 정도 방황을 했다.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면서 살았다고 한다. 동생의 소개로 차씨는 부인을 만났다고 한다. 부인은 평범한 여자였지만 어머니와 닮은 여자로, 그때부터 방황을 마치게 되었다. 부인을 만나 곧 결혼을 할 수 있었다.

동생의 도움으로 1년 후에 대구에서 염색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다. 차씨는 29살 때 처음으로 취직을 한 것이었다. 그때 월급은 30만원 정도였던 것 같다고 하였다. 풍족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어려운 생활도 아니었다. 대구에서 부인과 단칸방에서 살았지만 행복한 시절이었다.

하지만 차씨의 행복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다. 부인은 몸이 약해서 크고 작은 병에 시달리곤 하였다. 그래서 아이도 가질 수 없었다. 그렇게 지내다가 차씨의 부인은 어느 날 갑자기 별로 앓지도 않고 죽고 만다. 결혼 7년만이였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일이었다. 괴로웠지만 직장을 그만 둘 수는 없었다. 부인과 사별한 후 5년 정도 더 염색공장에서 일을 하였다고 한다. 공장이 부도처리가 되어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직장을 그만둔 차씨는 고향인 대구에 더 이상 정이 없었다. 그래서 5년 전인 1993년에 서울로 무작정 상경했으나, 금방 취직이 되지는 않았다. 3개월 정도 여관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염색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다. 도봉구 방학동에 있던 공장이었는데 차씨는 나염일을 맡았다고 한다. 월급은 70만원이었다. 공장근처 지하방에서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사례 11〉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정상적인 결혼에 성공한 사례이다. 단칸방이지만 정상적인 독립공간을 확보한 주거생활이었다. 그러나 부인과 사별한 후 불안정한 직장이 그의 이동성을 증가시켰고, 주거공간도 열악한 상태로 떨어지는 상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사례 12>

유씨는 1989년 아파트 입주권을 사기 당하고 난 후, 부인과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고, 10년 전에 가출을 한 뒤 건축막 일을 하며 지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인이 없을 때 세 아들과 만나곤 했다.

현재는 부인이 직장생활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안을 꾸리고 있다. 가출해서 돈이 있을 때에는 무허가 여인숙에서 지냈고 서울역지하도, 어린이놀이터, 육교 밑, 겨울에는 쓰레기더미에서 지냈다. 노숙하면서 붙잡혀 93년에 은평구에 있는 갯생원에서 6개월 정도 지냈다. 가출해서 건축잡부일을 하며 지냈는데 일당 3만원에서 5-6만원까지 받았다. 일해서 여인숙비 내고 밥 사먹고 또 일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못 모았다.

〈사례 12〉는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불화가 발생하고 본인이 가출하는 사례이다. 그런데 가출하는 과정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진실인지는 알 수 없다. 단지 확실한 것은 정상적인 결혼을 하였고 자녀도 있으며, 어떤 이유인지 가정불화와 가족해체 그리고 비정상적인 주거생활, 노숙생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주거생활은 무허가 여인숙, 어린이 놀이터, 육교 밑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겨울철의 경우 쓰레기더미 속에서 잤다는 점이 흥미롭다. 쓰레기더미가 추위를 막아주는, 노숙자에게는 훌륭한 잠자리인 것이다. 다음의 〈사례 13〉과 〈사례 14〉는 독신생활자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사례 13>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1년간 집에 있다가, 17살에 제주도에서 공장생활을 2년 정도 하였고, 부산으로 가서 프

레스공장에서 2년 정도 일을 하였다. 22살 때 서울로 올라와서 해보지 않은 일이 없다. 사우나에서 등을 밀기도 하였고 유원지 음식점에서 심부름 생활, 상이군경 보조원 역할, 감사원 식당에서 그릇 닦기, 음식점에서 숯불 피우는 일 등을 하였다. 또 도선사에서 1년 6개월 동안 잔심부름을 하기도 하였는데, 거기에 계시던 스님이 중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는 권유도 했지만 따분할 것 같아 싫다고 하였다. 91년(24살) S 플라스틱에서 일을 하던 중 장난을 치다가 목과 허리를 다쳐 지금도 힘든 일은 할 수가 없다. 별 기술도 없고 힘을 쓸 수가 없어서 내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혼자 여행을 한다. 얼마 전에도 대전과 정선을 다녀왔다. 아직은 젊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가 있을 때에는 공장에 가서 해결하곤 한다.

<사례 14>

정씨는 농사를 짓는 부모님 사이에서 3남 1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고향에서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7년 서울로 바로 올라와서 고향 형이 소개해준 인형공장에 월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다니다 1달만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5개월간 병원에 입원하였다. ... 음식점을 나와서 을지로 뽕랭땅백화점에서 4일간 잠을 잤는데 출기도 하고 적응이 안 되어서 종로3가 피카디리 극장 뒤쪽에 있는 하루 5천에서 8천원짜리 쪽방에서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20일 동안 버티다 서울역에서 상담을 하여 본 컴퓨터까지 오게 되었다. 정씨는 음식점에서 약 8년 동안 일을 하였는데

틈틈이 노가다도 하고 남대문시장 노점에서 옷을 파는 소위 '골라골라'도 하기도 하였다. 큰형과 작은형이 서울에 살고 있어서 도움을 청할 만도 한데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편잔을 들을까봐 연락을 안 하고 있다. ... 정씨의 간접적인 노숙원인은 먼저 음식점을 개업하다가 사기를 당하여서 약 2천 5백만 원을 빚진 것이었고, 혼자 생활을 하다보니 지출을 규모 있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가 안 좋아 음식점을 나오게 되니 노숙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이다. 미래에 대해서는 빨리 직업을 다시 잡아 일하고 돈을 모아 결혼을 해야 돈이 모인다는 점을 알고 있다. 20대 초반에 6개월간 동거경험이 있는데 돈이 있을 때는 여자가 따르지만 돈이 없고 별볼 일 없을 때는 여자가 안 따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위의 두 사례는 독신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이다. 두 사례 모두 30대 초반의 연령이지만 이러한 독신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알 수 없다. 불우한 성장 환경과 빈곤하고 불안정한 현재의 생활이 이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결혼에도달하는 것을 막고 있다. 또한 이들의 자괴감, 소극성, 피해의식 등이 정상적인 이성교제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른 사례들에서도 나타나지만, 더러는 늦은 나이에 동거나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을 하지 못하고 독신생활이 40대, 50대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 이 계층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사례 15>

김씨는 걸으로는 별로 고생을 안한 것 같은데 이혼하고 감옥에 갔다온 경력이 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출해서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1개월 생활한 적도 있고 중학교 때도 가출경험이 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친구와 납부금 걷은 것을 갖고 나가 그 당시에 유행하던 몰러스케이트를 사고 다 써버리는 바람에 퇴학당했다. 19살인 1979년에 무교동 S 호텔 부근의 Y 커피다방에서 서빙을 하다가 주방을 맡아서 2개월 정도 일을 하였다. 그 당시에 17만원을 받았고 팁도 챙길 수 있었다. 명동 C 다방을 3천만 원에 인수하려고 하였는데 나이가 아직 어리다고 집에서 도와주지 않았다. 그 때 집에서 도움을 주어 물장사를 하였다면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다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 친구가 찾아와서 다방에서 일하면 장가가기도 힘들다고 하며 인쇄를 소개해서, 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때 한달 받은 월급이 8만원정도였다. 결혼은 20살인 80년에 하였다. 다방에서 일할 때 만났던 동갑내기 아가씨와 동거를 하였는데 84년 사내아이를 낳고 결혼식을 올렸다. 지금 그 애가 커서 고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모른다. 82년부터 약 15년간 인쇄계통에서 일을 하였는데 부천, 구로공단 등에서 일을 하였고 제법 큰 인쇄소인 D, S, H, S 인쇄, H 화장품 등을 거쳤다. 인쇄일은 기본급이 적기 때문에 야간작업이나 철야를 해서 수당을 많이 타기 위해 야근을 많이 하였다. 89년에는 인천에서 갈비집을 크게 내, 1년 3개월 정도 하였다. 손해보지는 않고 그럭저럭 운영하다가 정리를 하였는데, 집사람은 홈페이지, 미용실 등을 하면서 악

착같이 살려고 하였는데 나는 게으르고 어영부영하니깐 그 때부터 의견대립이 있게되고 또 바람도 피우고 하니깐 사이가 멀어지게 되어 이혼하게 되었다. 이혼하고 서대문에 3천5백만 원의 전세를 살았는데 혼자 사니까 생활이 절체도 안되고 해서 2년만에 다 까먹었다. ... 98년 10월 3일 출소를 하여 검단공단에 있는 인쇄업체에 월 150만 원을 받고 일하기로 하였는데 신원증명서를 요구하여 차일피일 미루다 그만두고 신정동에 있는 여인숙에서 지내면서 인력사무소에서 소개시켜준 아파트공사장에서 일당5만 원을 받고 일을 하였다. 출소할 때 주소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순진하게 아내가 살고있는 집주소를 가르쳐주었는데 그쪽으로 연락이 가서 감옥에 있었던 것을 아내가 알고 있다. 아내는 필동에 살고 있는데 '모찌고이'라고 인쇄일을 맡아다가 하청업체에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아내는 생활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다.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외로우니까 카바레에 가서 춤을 추는 것 같다. 전화는 가끔 하고 식사를 할 때도 있는데 정은 남아 있지 않다. 전처와 재결합할 마음은 없고 생활이 안정되면 아이가 딸린 사람이라도 만나서 같이 살 생각이다.

<사례 15>는 노숙생활로 전락하는 계층의 결혼생활의 전형적인 한 단면을 보여 준다. 어린 시절 잦은 가출과 비행, 10대의 취업, 직장에서 만난 여자와 동거 생활, 자녀 출산 후 정식 결혼, 개인적 불성실과 여타의 이유로 이혼, 무절제한 생활의 반복과 범죄 및 비행,

주거공간의 상실 등으로 이어지는 경로이다.

<사례 16>

서씨는 경북 문경에서 7살 때까지 생활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부친이 벽돌공장 종업원을 하는 매우 궁핍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힘든 시골생활을 벗어나고자 서울로 올라왔으나 부친이 마땅한 일자리가 없게 되자 종이폐품을 수집하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었다. 당시 13살 위인 큰 누님은 가출하였고 3살 위인 작은 누님은 실공장 직공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서씨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나 학업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고 Y 초등학교 5학년 때 학우와 싸우면서 퇴학 처리되었다.

5학년 퇴학 후 모친의 돈을 훔쳐 부산행 열차에 올랐다. 부산의 어느 철공소 사출(성형)공장에 12살에서 23살까지 다녔다. 처음엔 합숙을 하였고 나중엔 사글세방을 구해 생활을 하였다. 24세 때는 다른 사출 공장을 구해 1년 정도 다녔고 27세 경 목포에서 고기 소형어선을 3년 정도 승선하였으나 이용만 당하고 도망나왔다.

고깃배에서 도망 나온 후 공주에 살고 있던 작은 누님 댁에서 2달 정도 생활을 한 후 28세 되던 해 다시 부산에 내려가 신발공장을 1년 정도 다녔다. 한번은 1살 많은 사촌형을 따라 고깃배(8톤)를 탔으나 말과는 거리가 있어 15일 만에 도망나왔다. 이후 집에서 쉬다가 신문배달을 2달 정도 하였다.

31세 때 부산과 서울을 전전하다가 한 식집 배달을 했으며 이 때 같은 한식집에

서 서빙을 하던 임씨라는 아가씨와 월 20만원씩 주는 방을 구하여 4년여 동안 동거를 하였다. 이 때 현대 자동차 하청을 받아 용접하는 카센터에서 지게차 비슷한 차량을 이용하여 2년간 배달하기도 했다. 35세 때는 임씨와 혼인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 남자와의 사이에서 5세 된 아이가 있는 것을 알았고 술과 성격상의 차이로 별거를 하게 되었다. 이 시기 임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무렵 김해의 한 고무장갑 제조회사에 다니면서 오씨라는 지금의 동거녀를 만나게 된다. 오씨는 당시 K 상사의 사원이었으며 서씨와의 사이에서 4번의 유산 경험이 있다. 첫 번째 아이는 8개월 된 아이를 의사와 상의 후 유산시켰다고 하며 2번 째 아이는 7개월 되던 때 신호동이 있는 건널목에서 자동차끼리 부딪치는 것을 보고 유산되었다 한다. 3번, 4번 째 아이는 7개월 되어 모두 자연유산 되었다. ... 98년 8월 K 상사 부도로 단숨에 둘이 직장을 잃고 ...

<사례 16>의 경우도 앞의 사례와 비슷한 결혼생활 과정을 보여준다. 직장에서 만난 여자와 동거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일정 기간 후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배우자의 이전 결혼 경력을 인지하게 되면서 결혼생활이 파탄상태로 빠지게 된다. 이 사례의 경우 첫 배우자와 이혼 뒤 다른 배우자와 두 번째 동거생활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을 고려하면, 첫 배우자와의 파경이 배우자의 문제 때문인지, 본

인의 불성실한 결혼생활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진술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례의 주거생활을 살펴보면,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해 왔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어린 시절 가출 후 직장과 숙소가 공유되는 형태의 주거생활을 하였고, 이후에도 사글세방, 고기잡이배 승선, 결혼 후에도 월세방에서의 생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 직장에서 부부가 동시에 일을 잃고 노숙상태로 떨어진 것은 직장과 주거생활의 밀접한 연관성을 또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4. 직업이동 경로, 직업적 특성

앞의 사례들에서 노숙생활에 이르는 계층의 직업적 배경과 직장이동 과정을 단편적이긴 하지만 소개한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적으로 본다면, 조사대상 노숙자들이 최초로 종사하였던 직업분포는 영세 서비스 관련직에 32.1%, 소규모 공장노동자 28.3%, 소규모 사업장의 잡부 14.2%, 중·대규모 공장 노동자 9.4%, 건축 일용 노동자 7.5% 등으로 나타났다. 노숙하기 직전에 종사했던 직업은 영세 서비스 관련직업이 33.7%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었지만, 건축 일용 노동자가 22.1%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소규모 공장 노

동자는 10.6%, 중·대규모 공장 노동자도 4.8%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향은 노숙자들이 처음부터 영세 서비스업 등과 같은 저기능과 불안정한 수입을 특징으로 하는 직종에 편입되거나, 기술축적이 가능한 공장 노동자로 편입되는 경우에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한 건축 일용 노동, 영세 서비스업, 영세 자영업 등으로 분해되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의 사례에서 나타난 직업이동 경로의 특징으로는 첫째, 대부분의 경우 비슷한 직종에서의 이동이라는 점이다. 서비스관련 직종에서 직업활동을 시작한 경우 근무처는 이동하지만 여전히 서비스관련 직종을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건설노무직으로 시작한 경우에도 건설일용직으로 마감되고 있다. 공장노동자로 시작한 경우에도 주로 비슷한 계층의 공장을 떠돌고 있다.

둘째, 비슷한 계층의 직업이지만 매우 자주 직장을 옮기고 있다는 점이다. 짧게는 2, 3개월에서 길게는 2, 3년 사이에 근무처를 옮기고 있다. <사례 3>의 경우 20여년 간 중국집 배달부로 일했지만 한 곳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2, 3년에 1번씩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례 15>의 경우 15년 동안 인쇄업계에 종사하였으나, 관련 업체들을 상당히 자주 옮겨 다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이 주로 취업하는 업체들의 영세성과 고용의 불안정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영세 서비스 관련 직종에서 생산직(공장 노동자)으로의 이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생산직에서 서비스 관련 직종으로의 이동은 상당히 활발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특성의 차이 때문으로, 이들이 종사하는 서비스 관련직은 오랫동안 계속하여도 기능의 숙련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단순 노동을 주 특징으로 하는 반면, 생산직의 경우 단순 기능이지만 종사 기간에 따라 어느 정도의 기능향상이 가능하다. 때문에 서비스 관련 종사자가 생산직으로 이동하기는 쉽지 않은 반면, 생산직 종사자는 수익성과 상황에 따라 서비스 관련 직종으로 쉽게 이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 이동 경향은 직업의 고용안정성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으로의 변화이다. 이들이 이동하는 서비스 업체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약간의 저축을 기반으로 자영업 형태의 사업을 직접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므로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성공적인 경영으로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지속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나, 실패했을 경우 이들에게는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IV. 노숙경로 및 요인들

노숙생활에 이르는 전형적인 경로를 도식화하기는 어려운 작업이다. 노숙생활 자체가 비전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쩌면 예외적인 삶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삶에 이르는 경로를 정형화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전형적인 경로에서 벗어나는 사례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여기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노숙자의 생활사를 요약하여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전형적인 경로를 구성해 보았다.

성장배경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노숙자들은 불우한 가정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재혼했거나 이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했거나 성장한 사례가 많았으며, 조부모나 삼촌 등 부모가 아닌 혈연관계에 있는 친척집에서 성장한 경우도 있고, 고아로 부모를 전혀 기억할 수 없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부모슬하에서 성장한 경우도 있으나, 빈곤한 가정에서 정상적인 학교교육 과정으로부터 조기 이탈하여 취업전선에 뛰어 들어야만 하는 사례들이 다수였다.

이러한 이유로 소년기와 청년기를 가정과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보다는 직업 현장에서 보내는 기간이 많았고, 어린 나이에 직장을 선택해야 하거나 인적자

본에 대한 투자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저임금과 열악한 고용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이들의 사회화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저축과 계획된 소비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상적인 이성교제와 결혼생활로 연결되기 어려웠으며,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직장과 밀접하게 결합되는 형태를 지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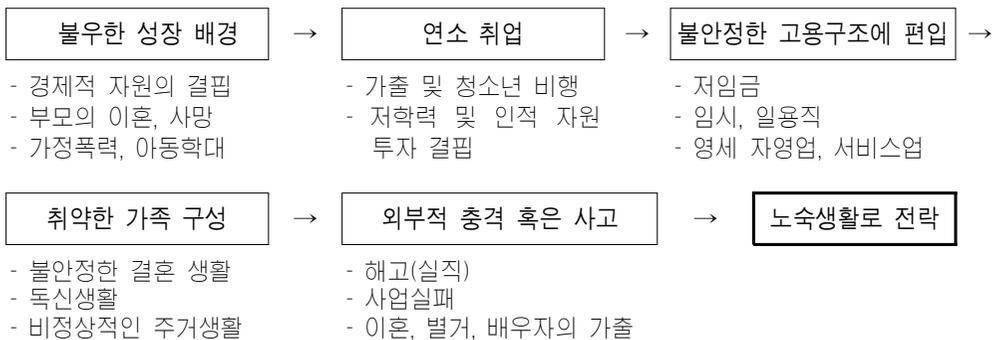
청년기와 장년기를 거치면서 안정적인 가정을 형성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독신으로 지내는 비율이 높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형태의 결합(동거)을 이루거나 결혼경력이 있는 배우자와 부부 관계를 형성하면서 불안정한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 관계의 결합의 강도가 낮아서 이혼과 별거, 가출 등의 가족해체 현상이 쉽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낮은 교육수준과 기능수준에서 선택된 직업들은 경력의 증가에 따

라 기능의 증가와 임금의 향상을 동반할 수 있는 직업들이 아니었고, 항상적인 고용의 불안정이 이들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게 하고 예측불가능의 상태로 빠뜨리고 있다. 가족의 불안정성과 직업의 불안정성이 증첩되어 주거 생활의 불안정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가족이 해체되거나 직장을 상실하는 특정한 사건을 겪게 될 경우 주거공간의 변화를 겪게 되고 이러한 상호관계는 부정적으로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지속한 사람들은 노년기에 노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특별한 외부적인 충격(IMF 사태에 따른 대량실업난도 포함된다)이나 개인적인 문제가 심각할 경우 청년기나 장년기에도 노숙자로 전락한다.

이상과 같이 노숙자의 생활사에 나타난 노숙 경로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전형적인 노숙 경로>



V. 맺음말

여타 사회정책이 그렇듯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도, '왜, 누가, 어떻게' 노숙자가 되는가를 알아야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다.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 조사연구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노숙자 대책수립의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우리 나라의 노숙자들은 IMF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출현하긴 했지만, 노숙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준비' 내지 '악화' 과정이 있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숙자들은 "불우한 가정에서 출생하여, 정상적인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채 어려서부터 취업을 하거나 가출한 다음,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일하다가 IMF 이후 일거리가 급감하면서 노숙에 이르게 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들은 가족구성과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했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를 완충해 줄 수 있는 주변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다. 불안정한 생활형편으로 인해 주거사정도 날로 악화되어 왔으며, 노숙 직전에는 대개 월세나 일세방, 건설현장의 함바, 기숙사 등을 전전했다. 더구나 불의의 신체적, 경제적 사고는 가뜩이나 취약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의 재기의욕을 꺾어 놓기도 했다.

따라서 노숙자가 형성되는 과정은 크

게 보아 우리 사회의 빈곤화 내지 빈민형성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 제도가 제대로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한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소년소녀 가장이나 고령자 위주로만 생계보호를 실시함으로써, 일용근로자 등이 장기실직 상태에서 가족관계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파악하기로도 현행 자활보호대상자의 47.5%는 사실상 근로능력이 없지만, 생계비 지원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관계로,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 조사가 주는 시사점은 노숙자 대책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장기간에 걸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노숙상태에 이른 사람들은 가족이나 사회적 지지망 자체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응급조치로는 사회복지가 불가능하다. 일차적으로 노숙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를 위해서는 총체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단 노숙에 이른 경우는 육체적인 질환치료에서부터 심리상담과 치료, 알코올의존증 치료, 사회성 훈련, 직업교육 등을 장기간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가 가

능하다. 따라서 발생한 노숙자에 대한 대책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외에는 대안이 없다. 다만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본 조사연구는 그 자체로서는 아직 미완성이다. 110명의 조사대상자들이 전체 노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숫자인가 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조사한 노숙

and Severe Mental Illness.

참고문헌

1. 서울시 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 1999, 『노숙의 원인과 양상』.
2.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1998, 『노숙자 건강실태 조사보고서』.
3. 한국도시연구소, 1998, 『홈리스의 발생원인과 실태에 관한 연구』.
4. Bassuk, E. L. & Rosenberg, L., 1988, "Why does family homelessness occur? A case control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78.
5. Burt, M. and Cohen, B., 1989, *America's Homeless: Numbers, Characteristics, and Programs that Serve Them*, Washington, DC : The Urban Institute.
6. DOE, 1996, *Study of Homeless Applicants*, London : DOE.
7. Federal Task Force on Homelessness and Severe Mental Illness, 1992, *Outcasts on Main Street: A Report of the Federal Task Force on Homelessness*

자들에 대해서도 빈곤화 및 부랑화(浮浪化) 과정을 사회경제적 상황변화 및 개인적 조건변화와 연관지어 면밀히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미 노출된 노숙자 외에도 일세방 등에서 생활하는 잠재적 노숙자가 다수 있기 때문에, 후속 조사는 이들에 대한 조사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후속연구들을 기대하는 바이다.

8. Koegel, P. et al, 1996, "The Causes of Homelessness" in *Homelessness in America*, Washington, DC : Oryx Press.
9. Leach, J., 1979, "Providing for the Destitute" in J. K. Wing & Olsen(eds), *Community Care of the Mentally Disabled*,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0. McChesney, K. Y., 1987,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of two inner-city emergency shelters for the Homeless*,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1. Mowbray, C., Solarz, A., Johnson, S., Phillips-Smith, E. & Combs, C. J., 1986, *Mental health and homelessness in Detroit: A Research Study*, Lansing: Michigan Department of Mental Health.
12. National Coalition for the Homeless, 1998, *How Many People Experience Homeless?* NCH Fact Sheet #2.
13. _____, 1998, *Who is Homeless?* NCH Fact Sheet #3.
14. _____, 1998, *Why Are People Homeless?* NCH Fact Sheet #1.
15. Rossi, P. H., Wright, J. D., Fisher, G. A. & Willis, G., 1987, "The Urban Homeless: Estimating Composition and Size," *Science*, vol 235.
16. Shinn, M. & Weitzman, B. C., 1990, "Research on Homelessnes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46, no. 4.

17. Sosin, M. R., Colson, P. & Grossman, S., 1988, *Homelessness in Chicago: Poverty and pathology, social institutions, and social change*,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18. Weitzman, B. C., Shinn, M. & Knickman, J. R., 1989, "Mental health problems as risk factors for homelessness," Paper presented at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meeting.
19. Zorza, J. 1991, "Woman Battering: A Major Cause of Homelessness,"

Clearinghouse Review, vol. 25, no. 4.